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6
Jun. 2017
Vol.5 No.6

- 뉴멕시코 단기선교
- 작심삼일 특새
- 주안에훈련
- 교구탐방·간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2박3일’



■ 3개채플 연합 VBS 캠프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VBS가 벨리채플에서 세 채플 연합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계획했을 때의 우려와는 다르게 9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축제 한마당이 되어 벨리채플이 생기로 가득찬 일주일이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권사회의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과 아직 어린이의 티를 다 벗지 못한 중고등부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전 세대의 어우러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는 것이 주안에교회 벨리채플의 첫 시작을 같이 했던 기자는 눈에는 감동 그 자체였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몸이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이 넘쳐났으며 지난 세월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쌓아놓은 사랑은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럭비공처럼 튀겨 다니는 아이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는 손길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들의 보석같은 젊은 교육부 교역자인 강솔로몬, 김유진, 성이삭, 이규하, 이명재, 이성우, 이요셉 전도사님 등의 역할

은 두말할 나위없이 빛났다.

ICKIDZ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도 봉사자로 나선 중고등부학생에 뒤처질새라 더욱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주일에 모두 보며 놀란 데코레이션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아이들의 엄마이자 선생님이었던 집사님들이 중심을 잡아 주었다.

첫날 저녁식사와 함께 모이기 시작한 아이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에 몰입하였고 아홉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은 2박3일 동안 아이들의 패밀리가 되었다.

<12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 ICY/EM 뉴멕시코 단기선교 도네이션

선교비 마련 카워시... 신나는 봉사 너럭한 감사

6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게 될 EM/ICY 뉴멕시코단기선교 기금마련을 하기 위해 1일 세차를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EM/ICY 자녀들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6월 3일(토) 새벽예배를 마칠 즈음, 우리 20여명의 EM/ICY 자녀들은 성이삭, 이성우전도사의 인도아래 세차도구를 챙겨 들고, 벌써 마음은 선교지에 가 있는 듯, 들뜬 마음과 설레임을 가지고 밸리채플 주차장 한 켠에 마련된 세차장소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새벽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께서 맡기신 자동차를 얼마나 정성스레 닦고 또 닦는지, 아마 미국내 어느 Hand car wash를 가더라도 이렇게 정성을 드려 세차를 해주는 곳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 뿐만이 아니고,



세차를 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해맑고 밝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3시간동안 30여대의 자동차를 세차하느라 체법 지칠 만도 했지만 세차를 마친 저들의

얼굴은 더욱 생기가 돌고, 벌써 선교를 시작했구나 하고 기쁨에 찬 얼굴들이었다.

이번 선교비 마련 세차는 1회에 그쳤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호응과 또 세차를 하지 않고도 donation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감사히 마치고 또 상당한 금액을 모금하여 선교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안에교회가 하나됨이 비단 이곳 뿐일까. 먼저 본을 보이는 선배 성도님들의 뒤를 따라, 기쁨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우리 EM/ICY 후손들을 바라보며, 주안에교회의 미래가 너무도 밝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임을 확신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쁜 하루였다.

■ 멕시코 선교센터 부지 답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복음의 터전 되길”

5월 29일 노동절 휴일을 맞이하여 멕시코 선교센터 부지를 돌아보고 오기 위해 김준영, 정도영, 윤종화, 이방길 장로, 오찬국 집사는 벨리체플에서 새벽기도 후 출발하였고, 김영기, 김경일 장로는 새벽기도 후 다우니에서 벨리체플에서 출발한 일행과 합류하여 7명의 답사팀이 목적지 멕시코 San Dicente, Colomet 지역을 돌아보고 오기 위해 현지답사를 출발하였다.

노동절 연휴인 관계로 멕시코로 향하는 길은 매우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날씨와 도로 사정이 최상의 상태에서 다녀올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느끼며 멀지만 멀게 느껴지지 않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작년 말부터 멕시코 선교센터 준비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7년 예산에 선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고 윤종화 장로는 현지인 목사의 도움을 받아 구입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 오던 중 급번 답사팀이 현지를 돌아보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출발하는 우리 답사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날 나로 순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창 24:12)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쟁과 쟁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 14:8)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소 8시간 걸리는 거리를 6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도착 즉시 현지에서 목회하고 계신 멕시코 원주민인 Rudy Lopez 목사의 안내를 받으며 5곳의 선교센터 부지와 1곳의 선교센터를 둘러볼 수 있었다.

원래 계획은 1박 2일의 일정이었으나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되었고, Rudy Lopez 목사택에서 준비한 이튿 저녁을 마친 후 일행은 당일로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강행군을 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보려고 예정했던 곳은 모두 볼 수 있었고, 그 중에 Colomet 한 곳은 일행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교센터 후보지로 동의하였다. 그 곳은 마을과 도로가 접해 있고, 전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다. 면적은 1 ha(2.47 acre)이다. 그러나 더 필요하면 접해있는 땅이 있어서 더 확보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제 시작되오니 우리 주안예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되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 갖게 하시고, 멕시코 San Dicente, Colomet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 모르는 원주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건립부터 모든 선교사역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소원한다. | 김경일 장로 |

■ ICY/EM 뉴멕시코 단기선교 훈련

50여 젊은 용사들 기도로 뜨거운 가슴을

EM/ICY 뉴멕시코 단기선교를 위한 마지막 훈련이 지난 6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벨리체플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LA체플에 모여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또 어떻게 선교와 VBS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잘 훈련받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Intensive training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나이 어린 ICY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나바호 원주민 선교이므로 많은 부분에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아침예배, 이어서 전도훈련 세미나와 체력훈련, 각 팀별로 나누어 준비할 상황들을 점검하고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여명이 참



석한 이번 Intensive 훈련은 실전을 앞두고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저녁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나눔과 기도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Man of God 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점심과 저녁식사를 준비하느라 주방에서는 여러분의 권사님들께서 분주하게 움직인 참으로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이번주(25일) 오후, 뉴멕시코나바호 원주민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를 떠나는 50여명의 주안에 용사들과 20여명의 써포터즈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축복하시고 주안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주간 기도로 열심히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새성전 마련 작심삼일 특새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LA채플과 플리튼채플의 순조로운 합병을 위해 지난 6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동안 LA채플에서 특별새벽예배를 가졌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은 우리가 합병을 결정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성전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곳에 성전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LA와 플리튼 사이에 어느 위치에 성전이 결정되더라도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영혼도 흩어지거나 상처 받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주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말씀하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큰 죄를 범하는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



히 의지하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쁜 일상가운데서도 매일 50여분의 성도님들이 새벽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으며, 모두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2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곳에 주안예교회 새 성전을 예비

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함께 섬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배부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드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행복한 꿈을 꾁니다.



배우는 기쁨, 만나는 즐거움에 3개월이 금방 지나

■ 주안에라이프 불학기 증강

지난 3개월동안 즐겁고 유익하게 달려온 주안에라이프(이하 주라이프)가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서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벌써 7기를 마친 이번 주라이프는 이미 벨리 지역에서는 너무나 유명해지고 또 칭찬이 자자하여 타교인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Senior Academy 입니다.

주라이프 담임국장인 김경배 안수집사는 “지난 3개월동안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주라이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 고 밝혔습니다.

뱅짚은 이미란 전도사의 사회, 김경배 국장의 기도, 황영옥 권사의 인도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에 이어, 박현동 목사의 “행복”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사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3개월 동안 배우고 같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전무용, 색소폰, 하모니카, 건강댄스, 키보드연주, 노래교실, 하프연주, 스트레칭, 라인댄스 등으로 이어졌고, 배운 것을 직접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은 수업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프로그램은 역시 주안에 대장금들이 정성을 다한 음식 대접이었는데,

권금자, 김정자, 안유은 권사의 도움을 받고 탐장으로 김현숙 피택권사가 20여분의 집사님, 권사님들과 헌신적으로 수고하였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 이름을 모두 올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라이프 불학기를 마치고 아쉬워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란 전도사로부터 가을학기는 8월 23일(수)에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학기에는 무슨 과목을 들을까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라이프를 통해 벨리지역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두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찾아

■ 제4기 플러튼 주안에빛 개강

제 4기 플러튼채플 주안에빛 교육이 6월 11일 예비모임을 시작으로 12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김경일 장로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실 교역자들과 또 강의에 임할 피교육자들을 위해 건강과 지혜를 부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주시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안에빛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네비게이션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의 개요를 강의하는데 크게는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하며 조명해보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훈련생들은 나실인의 마음으로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매일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할 것, 예배와 복습을 철저히 할 것 등도 약속



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다짐도 했습니다. 주안에빛 교육을 위해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 평사원에서는 많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교육이 취소되거나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배움의 열정을 살리

시고 등록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2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를 통하여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안에교회에는 큰 기쁨을 세우며, 개인들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조성운 기자 |

18주 말씀 통독, 피로와 장애물 뚫고 기쁨의 피날레

■ 제7기 주안에말씀 종강

우리는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만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는 일에는, 다른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순서를 바꾸어버리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 성경읽기는 시작할 때 누구든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만, 일정하게 짜여진 계획이 없이 혼자서 감당해내기엔 나약함이란 장애물의 벽이 너무 높기만하다.

주안에교회에서는, “주안에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18주 동안에 성경 66권 전체를 완독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진행중인



데, 6월 11일에 제7기 “주안에말씀” 수료식이 세 채플에서 있었다.

지난 2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주중에 하루씩 모여서 몰려오는 피로와 쏟아지는 줄음도 외면한 채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읽어대던 29명의 자랑스러운 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이었다. 함께 모여 읽는 날 외에 각자 읽어야 할 분량이 많아서 생활의 한부분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성경과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해야 했던 일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함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짐을 경험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까지의 맥을 찾아가면서 부족하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고백을 접할 때, 전교

인이 꼭 참여해야하는 필수과정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해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말씀을 읽지않거나, 읽어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기복신앙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교회는 출석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며,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주안에말씀”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 속에 숨겨진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가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그 말씀들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오희경 기자 |





동심 속에 심은 예수님 말씀...





평생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



■ 새가족 소개
(정강수 안수집사)

“은혜의 말씀에 전율, 찬양으로 화답”

정강수 안수집사님은 Fullerton재플의 새 교우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누구보다도 친숙한 분이다. 주안예교회에 작년 12월에 등록을 하고 1월부터 찬양대에 합류하여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물론 강단에 서는 찬양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고 미소를 잃지 않기 때문에 친숙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 집사님이 합류하시기 전까지 찬양대는 주로 젊은 분들의 무대였다. 그런데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 합류하셔서 성도들이 조금은 편해지고, 찬양대와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회를 다녔지만 최근 몇 년간은 교회에 대해 많은 회의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은혜도 없었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터넷 유튜브에서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리고

바로 주안예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주님의 따뜻한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에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사님과 찬양사역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젊은 시절부터 찬양대와 성가대에서 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리를 찾아간 것뿐이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김 경일 장로님의 구역에 배정을 받은 것도 제게는 큰 행운입니다. 김경일 장로님과 김옥희 피택권사님 두 내외분이 얼마나 잘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는지요. 제가 이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주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집회 때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대 연습을 위해 새벽 3시 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아침잠



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힐링캠프에 가서는 평생의 숙제가 해결되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고 성경 공부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지요. 그것이 힐링캠프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제 친구이고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주안에 교회에 와서 갖게 된 큰 소득,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남은 인생은 주안예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찬양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아멘’으로 감당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감히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약속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집사님이 주안예교회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올해에 주신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 조성운 기자 |

■ 칼럼

“나그네의 삶, 짐은 간편하고 가볍게”

흡리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차림이나에 따라 그 삶의 역사가 드러난다. 마켓 카트에 잔뜩 싣고 다니는 사람은 오래되지 않은 흡리스. 끌고 다니는 가방을 지닌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그 생활을 한 사람. 품만 다니는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산 사람. 우리 사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구분이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은 이민 와서 돈이 있으면 세계 최고급 브랜드의 가구와 살림 도구를 산다. 신젯단지처럼 모시다가 늙으면 남 주기 아깝고, 자식들한테 가져 가라고 하면 다 싫다고 고개를 흔든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아이들은 그들의 취향만을 존중한다. 부모의 권고가 그들을 귀찮게 할 뿐이다. 이 때부터 고가의 물건은 짐이 되고 만다. 이 큰 나라는 쉽게 삶의 터전을 바꾸며 살기 때문에, 살림 도구가 간편하고 이동하기 쉬운 것을 선택해서 산다.

내가 사는 타운은 대학이 많아서 인지 자기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떠나는 젊은이들을 가끔 본다. 침대, 작은 탁자, 바비큐 그릴,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화초 한 그루. 직업을 따라



옮기는 걸까? 좌우간 잘 움직이는 이들에게 화려한 가구가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수만 불을 들여서 차이나 세트를 사둔들 평강과 기쁨을 담을 수 없다면 짐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안다. Brand Name에 생명 걸고 투자하는 우리는 늙을수록 가벼운 그릇이 좋고, 진열장의 그릇은 눈요기 하다 만다.

한국을 떠나올 때 가장 한국적인 장식과 도자기들을 사 갖고 왔지만 본인조차도 잃어버린 그 가치. 자손들의 눈에는 촌스러운 꼴밖에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애지중지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이민 와서 바블 한 쌈을 샀다. 37년을 써도 아직 내 반진고리에는 남아 있는 바블이 있다. 광야의 나그네의 삶.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일까? 집을 사면 채울 가구를 새로 장만하고, 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들을 채울 것들이 장식처럼 필요하다면 일생에 몇 번 가진 것들을 바꾸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나 않은지.

일전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던 교우의 장례식에 가서 그 분에게 구역에 들어 오시기를 청했더니 구역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셨다. 암을 갖고 계셨던 분. 구역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폐를 끼칠까 배려하셨던 것 같다. 우리의 수명을 안다면 그렇게 준비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떠나야 하는 이 땅을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가꿈은 유언장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이예스더 기자 |

■ 3교구(플러튼채플)

3교구는 한 마디로 알곡 교구입니다. Fullerton 채플의 알곡 교인들이 가득한 교구이기 때문에 기자가 함부로(?) 불인 이름입니다. 교구장님 이하 모든 교구원들이 그야말로 굵직한 알곡들이십니다. 3교구는 또 주안에교회와 최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도에 있어서도 어느 교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열정과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교구원들이 오직 주안에교회를 좋아하고 최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송다니엘 피택 안수집사님과 송다나 권사님택에서 10여 명의 구역원들이 모여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과는 3과 '비전을 품은 사람, 여호수아'였고 인도는 교구장이신 김영갑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의 단순한 수종자가 아니라, 동역자이자 체험적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의 지시에 순종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모세의 기도와 그 기도를 함께 도운 백성들이 있었고, 모세의 지시에 순종하며 따른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기도로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는 뜨거움을 넘어 격렬하기까지 했습니다.

뜨거운 말씀 공부를 마치고 송집사님 택에서 준비해주신 저녁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교제는 공과공부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으니 뜨거울 수밖에 없겠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하다보니 10시가 되었습니다. 송다나 권사님은 남은 음식과 과일들을 한 가정씩 푸짐하게 싸서 나누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배부르고 맛있는 음식으로 또 배부른 하루였습니다. 늘 멀리서만 보던 3교구 식구들과 이렇게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행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1교구(밸리채플)

지난 6월 18일(주일) 예배를 마치고, 밸리채플 1교구(교구장 김진석장로/선자권사)는 6월달 구역모임을 교구 전체모임으로 Dunsmore park에서 오후 3시부터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park에 자리를 잡기 위해 민태경, 오혜수 집사가 교대로 수고를 해 주었고, 30여명의 교구식구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여 여느 개척교회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교구장님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또 구역장들이 조금씩 음식을 도와 풍성한 야외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95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도 불을 피우고 2시간 넘게 땀을 흘리며 고기를 굽는 성도님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권사님께서 40파운드의 갈비를 준비해 주셔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으니 그 사랑을 짐작하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말씀·섬김·친교·기쁨 공동체



밸리채플 1교구는 모두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구역장에 정진복/유정, 2구역장에는 이광영/임혜신 그리고 3구역장은 이원근/명주집사가 구역원들을 정성껏 섬기고 있는 소문난 교구입니다. 특히 김진석/선자 교구장은 구역장들과 모든 교구원들을 깊은 사랑으로 섬기고 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 구역장들은 물론 모든 교구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주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깜짝 방문해주신 양국민목사님을 위해 케익 파티를 갖고 다시 한번 모두함께 기뻐하고 축하해드리며, 함께 케익을 나누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귀한 교제를 나누는 여유롭고도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부 순서로 이어진 교구장팀 VS 구역장팀의 발야구시합에서는 5회까지 4:4의 팽팽한 접전으로 연장전에 돌입, 5:4로 교구장팀이 승리, 구역장팀이 준비한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모두 함께 후식을 나누었습니다.

오전에는 최혁담임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영의 만찬을 먹고,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에서 육의 양식과 함께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밸리채플 1교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두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제7기 주안에말씀 간증

창세기 첫구절, 이전 믿음의 고백되어...

주안에삶을 마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들어 무작정 시작한 “주안에 말씀”은 무려 18주되는 긴 과정이었고 어느덧 마지막 주에 성경 1독의 기쁨과 대견함을 맛보게 되었다.

제일 와 닿았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다. 먼저 이유를 설명하려면, 주안에 통독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이 말씀이 내 신앙가운데 믿기지 않았음을 고백 할 수 밖에 없다. 기독교를 내 신앙으로 갖고 살아온지 약 34이년나 된 나로서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진리”였고 그래서 당연히 머리로는 내가 이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온 것 같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당연한 한 문장이, 성경 전체 66권을 이해하고 믿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명제로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다.

나는 이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분의 자녀이자 피조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총 18주 동안 내가 읽은 66권의 성경말씀은, 한마디로 지난 6천년간 하루같이 쓰신 하나님의 일기장이며 그 안에 소망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The Garden of Eden)에서의 우리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시며 다시 그 때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꿈을 넣어 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외길 사랑에 너무나 쇠심했고, 34년간 믿어온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건지,, 철없이 흘러 보낸 시간들에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자서전이며 러브 스토리이다. 이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할 차례이다. | 전미선 집사 |



매일 먹는 영의 양식, 나의 힘 나의 생명

주안에말씀의 과정인 성경통독은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해준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기 전에 기대감과 떨림이 있듯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끈을 느슨하게 풀려고 하는 순간 이 훈련과정이 저를 다시 한번 더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였고, 육신의 양식으로만 배부르게 한 것인줄 알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바위 위에 흠어져

늘 피곤하고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치지도 않고 주안에 삶, 주안에말씀 훈련과정으로 계속 단련시키면서 어린이에게 양식을 먹이듯이 조금씩 천천히 말씀의 양식을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세상의 유혹으로 공급이 늦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의 자리를 분향으로 옮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저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 있어 펼치는 순간 영을 쫓겨 다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이며 힘이 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마가복음 4:14),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누가복음 4:20)

이 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속에서 살게 하시어 주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강진령 집사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김치타코는 준비와 조리방법이 간단하여 부담이 없고 골고루 영양성취도 가능해 구역모임 등 소그룹 모임에 적합한 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 박창신 기자

- 재료** 잘 익은 김치 1컵, 아보카도 1개, 옥수수 가루로 만든 토티야(타코셸) 불고기용 소고기(안심이나 등심) 2 파운드
- * 불고기 양념: 볶은 양파 중간 크기로 ½ 개, 다진 마늘 작은술 2, 다진 생강 작은술 2, 간장 큰술 2, 꿀 큰술 1, 청주 1 큰술, 참기름 1 작은술, 잘게 썬 파 3 뿌리, 잘게 썬 파 2단, 식용유 1 ½ 큰술(취향에 따라 Lime, Lemon, Cilantro 를 곁들여도 좋다.)
- * 김치 타코 소스: 사워크림 1/3 컵, 마요네즈 ¼ 컵, 다진 마늘 1 작은술, 고추가루 2 큰술, 파프리카 약간, 마늘가루 약간, 양파가루 약간, 후춧가루 약간, 소금 ¼ 작은술

김치타코 Kimchi Taco



- 조리법**
1. 불고기용 소고기를 양념에 버무려 2시간정도 재워 놓는다.
 2. 김치는 잘게 썰고 아보카도는 얇게 저며 놓는다.
 3. 김치 타코 소스 재료를 잘 섞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4. 재워진 불고기 재료를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한겹씩 구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는다.
 5. 타코셸(토티야)에 불고기, 김치, 아보카도, 파, 김치타코 소스 순으로 올려 개인 접시에 놓아 상에 올린다.



우리처럼 맑은 머세이드 강물에 비친 폭포와 바위산 황홀감

레드우드를 떠나 캘리포니아가 사랑하고 세 계인들이 아끼는 요세미티로 발걸음을 옮긴다.

요세미티는 중가주에 위치하고 LA에서도 5-6시간 운전하고 올라오면 방문할 수 있는 비교적 적당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씨에라 네바다 산맥을 등줄기로 하는 캘리포니아의 산악지역으로 해마다 4백만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다.

동서 출입구와 남쪽 출입구를 통해 공원에 들어서면 더글라스 퍼와, 롯지 폴, 그리고 세쿼이아 나무들의 우람한 자태에 저절로 첫 번째 탄성을 지르게 한다. 레드우드와 비슷한 패밀리격인 세쿼이아 나무가 세쿼이아 국립공원 뿐 아니라 이곳에서도(마리포사 그로브-2017년 가을 재개장예정) 만나게 된다. 이 거대한 나무들의 모습과 그 사이사이 작은 풀잎과 다양한 산형과 식물, 그리고 콩알크기만 한 작은 꽃잎을 피우고 트레커들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작은 꽃들의 군락들 속에서 창조주의 섬세한 숨결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거대한 숲속에서 이렇게 작은 생물체를 조화시켜 함께 공존하는 자연을 창조하셨다.

어제 공원 내 120번 티오가페이스를 넘는 동안 엄청난 양의 비를 뿌렸다. 해발 5000 피트 위의 산악지역엔 당연 함박눈으로 폭설수준이었다. 6월 중순에 함박눈이라니... 모든 트레커들이 함박눈에 같길을 멈추었다. 폭우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함박눈은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다. 왜 아니겠는가! 눈속 트레킹이 주는 힐링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를 마다하랴..

요세미티 빌리지로 가로질러 흐르는 머세이드강은 언제든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마력이 있다. 잔잔한 강물에 비추는 요세미티 폭포와 커다란 바위산들의 반영된 모습들 때문이다. 반영을 바라볼 때마다 산과 들은 숨김이 없다. 창조주가 허락하신 그 모습 그대로



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공원내 미스트 트레일이다. JMT 트레일을 비롯해 해프둠으로 오르는 트레일과 파노라마 트레일로 이어지는 커다란 유명세를 안고 있는 멋진 곳이다. 미스트 트레일 선상에는 연중 마르지 않는 두개의 커다란 폭포가 있다. 트레일 들머리에서 약 1.5마일 정도를 오르다 보면 버널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 이 폭포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미스트로 흩날려 폭포 갓길을 오르는 트레커들의 옷과 마음을 흠뻑 적셔준다. 두번째 탄성을 어찌 잊겠는가! 어제의 폭우와 폭설로 인해 트레커들의 발걸음이 한산해 보이지만 그래도 트레일의 주인은 흔들림이 없다. 마치 "이 산속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외치는 고성이가 들리는듯 하다. 미스트 트레일 선상에서 젖지 않은 옷을 입고 산을 오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젖은 옷도 두번째 폭포를 오르면서 땀과 열기로 차츰 말라간다.

다시 약 1.5마일 정도를 가파른 돌계단과 바

윗길을 오르면 정상부위에 네바다 폭포가 자리잡고 있을뿐만 아니라 축구장 만한 크기의 평평한 암반위에서 트레일에 지친 트레커들이 달콤한 휴식을 나누곤 한다. 얼음물이 흐르는 크릭속에 발이라도 담글라치면 이내 3초도 버티기 어렵다. 피곤에 지친 발목 힐링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

오던 길을 되돌려 하산을 하면서 다시 버널폭포에서 빌리지 건너편에 위치한 요세미티 폭포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겨울 적설량이 충분해서 인지 예년보다 폭포의 낙차가 크다. 커다란 물보라 무지개도 선물로 얻었다. 이곳은 해마다 4월말경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에 색색깔 무지개와 달리 '문보우'라고 하는 하얀 보우현상을 맞을 수 있다. 연중 한차례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한다. 그 뿐 아니다. 해마다 2월 3-4주경 약 10일정도만 허락하는 자연의 귀한 선물이 또 있다. 엘캐피탄과 요세미티 폭포 사이에 작은 폭포가 하나 있는데 'Fire Fall' 이라 불리우고 있다. 해질녘 석양 빛이 암벽 사이를 비추어 붉게 변하게 되는데 이 빛이 녹은 얼음물에 다시 비추게 되면 마치 용암이 흘러 내리는 듯한 귀한 장면을 연출하게 한다. 또 다른 탄성을 지르게 한다.

해질 무렵, 백년 전통의 유일하게 별다섯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는 공원내 마제스틱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트레커들에게도 테이블을 제공하지만 드레스코드만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12온스 이상의 스테이크를 정찬으로 주문하고 그랜드피아노 선율에 맞춘 품격 있는 저녁 만찬은 캐년 속의 피로를 슬며시 풀리게 하는 낭만힐링의 여행으로 마무리하게 만든다. 창조주께서 그의 섬세한 작은 숨결로 트레커들에게 완벽한 힐링으로 다가오심을 감사하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다.



윤성문 집사

■ 파더스데이 척추세미나

“건강한 허리, 평소 바른 자세·운동하세요”

플러튼채플에서는 파더스데이를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척추 측만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는 매달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척추 측만증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최유림 성도(카이로프랙터)였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와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못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바로 교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4명 가운데 세 명이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 척추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증세를 보이지 않아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척추나 목뼈에 충격을 받아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척추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크게 염려할 것은 없지만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힘쓰고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척추 디스크에 이상이 있어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의 증세로는 두통이 지속되고 어깨와 팔이 저리고 힘이 없습니다. 또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증세는 다리와 발이 아프고 저리며, 앉아 있을 때 더 아픕니다. 똑바로 눕기가 힘들고 통증이 지속됩니다.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있고, 뒤꿈치를 들고 걷기가 힘이 듭니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리치료와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또 무중력 감압기 치료와 한방

및 약물 치료, 그리고 통증 전문의를 통한 치료가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 가운데 70세 장로님은 허리의 통증으로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분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도 받고 의사가 원하는 치료도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유림 성도님께서 장로님의 증세를 들더니 이런 경우는 통증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고, 장로님도 좋은 정보와 정확한 권유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회의 다른 행사와 겹쳐서 오늘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강사님은 한 분에게라도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계속하겠다고, 장로님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사의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질문과 진찰을 통해 얻었습니다. 매달 세미나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최유림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모든 주안에 교우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성운 기자 |



〈1면서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장점은 살리고 작은 숨결 또한 나를 독특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것으로 인식시켜 주는 즐거운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중고등부 선배들이 만든 성극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아이들의 공감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온몸을 움직이며 율동과 병아리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따라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였다.

빛의 속도로 흘러간 2박3일의 시간이 끝나고 토요일 오후 부모님을 만나 돌아가는 발걸음은 오래

간만에 만난 진짜 가족을 만난 반가움과 지난 3일 동안 가족이 되어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배어있었다.

VBS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모든 관계자들과 어린 선생님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한 교역자분들 거의 대부분의 팀원들이 연이어, 바로 오늘 여름 단기선교를 뉴멕시코로 일주일간 떠난다. 육체적인 고단함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무척이나 큰 도전이 될 단기선교도 이번 여름성경학교처럼 성황리에 마무리 짓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한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밸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7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